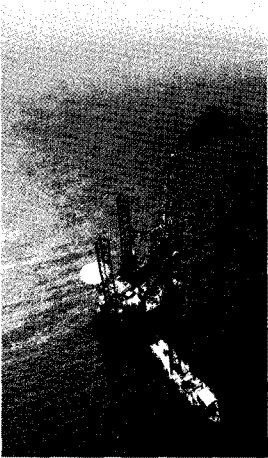




SK에너지, 2009년 매출 35조8,181억원



SK에너지의 200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유가하락 및 글로벌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감소, 정제마진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에너지는 2009년 한해 동안 매출액 35조 8,181억원, 영업이익 9,014억원, 당기순이익 6,904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각각 22%, 52%,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분기별 기준으로 보면 4분기에 9조 6,640억원의 매출에 57억원의 영

업손실과 1,06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

SK에너지의 이러한 실적은 주력사업인 석유사업이 유가하락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올해 중국, 중동 지역의 공장 신·증설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석유제품 수요 증가 및 경기회복 가시화에 따라 실적개선이 예상된다.

이러한 석유사업의 부진에도 SK에너지는 화학사업과 석유개발사업에서는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학사업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04년 수준에 육박하는 6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며, 석유개발사업은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SK에너지는 잠정 집계했다.

SK루브리컨츠, 세계시장 공략 탄력 받는다

"SK루브리컨츠가 글로벌 시장공략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SK루브리컨츠는 글로벌 메이저 자동차그룹인 GM(General Motors)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지역 본부에 이어 GM의 호주 법인인 'GM 홀덴(GM Holden)' 과 잇달아 윤활

유 지크(ZIC)의 단독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지난 1월10일 밝혔다.

이번 독점 공급으로 GM이 생산하는 자동변속기유에 SK루브리컨츠의 윤활유 ZIC를 탑재해서 북미지역의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최대 격전지인 북미시장에서 확고한 품질 인증으로 해외 마케팅을 한층 강화 할 수 있게 됐다.

GM에 공급되는 윤활유는 연간 5,000여만 달러(한화 약 560여억원)로 이를 자동차로 환산하면, GM이 생산하는 신차의 연평균 400만대 이상의 물량에 해당되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GM자동차에 탑재되는 규모다.

SK루브리컨츠 관계자는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GM의 품질 테스트를 거치고, 단독 공급자로 선정된 것은 SK루브리컨츠의 윤활유 기술력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글로벌 자동차업체들과의 추가적인 공급 협상에서도 한층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SK루브리컨츠, 박봉균 신임 대표이사 선임



SK루브리컨츠가 지난해 12월28일 이사회를 열어 박봉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박봉균 대표이사는 2004년 윤활유사업부장에 이어 SK에너지 산업에너지사업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황윤상 SK에너지 런던지사장이 YUBASE사업부장으로 이동하고, 채영대 ZIC사업부장직무대행이 ZIC사업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2명의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한편, SK루브리컨츠는 SK에너지의 윤활유사업이 물적분할 때 출범한 신설법인으로, 기유·윤활유사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1일 창립했다.

SK에너지,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 단행

SK에너지가 전사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지난해 12월 18일 단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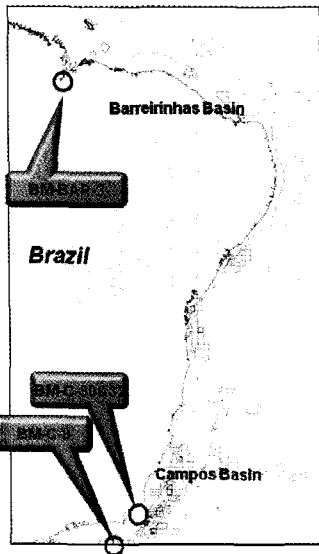
SK에너지 관계자는 “자율·책임경영 및 의사결정 Speed 제고, Global 공격경영 가속화, 조직 Slim化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 방향성에 따라 전사 조직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국 중심의 Globalization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을 중국에 전진 배치한다.
- 화학사업을 독립 CIC로 승격시켜 Global Player로의 성장을 추구한다.
- SK에너지의 기술 중심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술원을 CIC 형태로 운영하고, E&P 사업의 의사결정 Speed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원개발본부를 CEO 직속조직으로 분리·독립시키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유정준 R&C 사장이 R&M 사장으로 옮기고, 김용흠 화학사업부문장이 화학 CIC 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9명의 승진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 브라질 BM-C 32 광구에서 원유 발견



SK에너지가 브라질 BM-C-32 광구 시추 결과 원유층을 발견했다고 지난 해 12월 18일 발표했다.

SK에너지는 최근 BM-C-32 광구 암염 하부층에서 시추를 진행하던 중 원유층을 발견했다.

BM-C-32 광구는 브라질 에스피리투 산도 연안의 캄포스 분지에 위

치한 해상광구로, SK에너지는 2004년 11월부터 이 광구에 참여해 탐사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광구에는 SK에너지(지분율 26.67%)를 비롯하여, 미국 석유개발 전문기업인 대본에너지(지분율 40%), 아나다코(지분율 33.33%) 등 총 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SK에너지는 지난 11월 인근 BM-C-30 광구에서 원유를 발견한 데 이어 또 한번 브라질에서 원유를 발견함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 'SK교과서 여행' 인기절정

SK주유소 연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SK에너지의 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SK 교과서 여행」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SK 교과서 여행」은 지난해 5월부터 엔크린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100가족, 연간 1,200가족, 4,800명(4인가족기준)이 교과서에 나오는 국내의 주요 역사 유적지를 가족과 함께 떠나는 테마 여행으로 엔크린닷컴에 응모한 가족을 선정해 운영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

SK에너지는 고객들의 예상을 뛰어 넘는 호응과 인기를 국내 관광 활성화와 연결시키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침), 재단법인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위원장 신동빈)와 제휴 협약을 지난 2월 4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국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주변의 SK주유소에 관광정보 안내책자 배포 등 관광안내소의 역할도 병행해 관광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 시무식 개최



GS칼텍스는 지난 1월 4일 GSE타워 아모리스홀에서 허동수 회장과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시무식 행사를 갖고 미래의 지속성장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날 허동수 회장은 2010년 경영목표와 관련해 "석유 및 석유화학사업, 운할기유 등 기존 주력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연료전지, 박막전지, 탄소소재 및 자원개발 등 신성장사업이 GS칼텍스의 미래를 밝혀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올해는 기존 주력사업의 강화와 함께 신성장사업을 본격화하여 더 큰 미래로 향하는 가교 역할을 하자는 의미에서 'Bridge to the Future'를 올해의 경영목표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2009년 하반기 신입사원들이 입문연수기간 중 틈틈이 준비한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다. 'I am your Energy'라는 주제로 구성된 뮤지컬은 GS칼텍스 신입사원들이 진정한 에너지를 찾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혼합알코올 생산 기술 개발

GS칼텍스는 KAIST와 비(非)식용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연료인 바이오혼합알코올을 체계 최고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균주와 공정 개발에 성공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GS칼텍스 기술연구소와 KAIST 이상엽 특훈교수팀이 공동으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은 부탄올 발효 과정에 사용하

는 균주를 대사공학적으로 개량하여 부탄올과 에탄올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부산물로 생산되던 아세트산을 이소프로판올로 전량 전환시켜 바이오혼합알코올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것이다.

바이오혼합알코올은 이소프로판올, 부탄올, 에탄올 등 알코올 성분이 혼합된 바이오연료로서 부탄올에 비해 옥탄가가 높고, 에탄올에 비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원 리사이클링 사업 진출

GS칼텍스는 지난 2월 4일 국내 친환경 리사이클 플라스틱(Recycle Plastic)제조 선두업체인 (주)삼일폴리머를 인수, 리사이클링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리사이클 플라스틱이란 자동차, 가전제품 등으로부터 분리, 수거된 폐플라스틱을 첨가제와 함께 재가공하여 생산한 플라스틱이다.

대부분 플라스틱은 거의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 또는 매립되었다. 하지만 소각할 경우 온실가스 등 대기환경 문제가 유발되고 매립 역시 자연계에서 분해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서 매립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GS칼텍스는 (주)삼일폴리머 인수를 통해 급성장 가능한 리사이클 플라스틱 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자원 리사이클링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향후 GS칼텍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이다.

윤활유 인도법인 첫 수출 기념식

GS칼텍스는 지난 2월 10일 윤활유공장에서 윤활유 인도법인 첫 수출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지난 2월 5일 인도 뭄바이에 현지법인인 'GS Caltex India'를 설립하였으며, 오는 4월부터 현지에서 윤활유 완제품 판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인도는 세계 5대 윤활유 완제품 시장으로, 본격적인 윤활유사업 해외진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 소원성취 릴레이 봉사활동 시행



GS칼텍스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2일 까지 1주일간 400여 명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여수 등 전국 7개 도시에 거주하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등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GS칼텍스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름마을을 방문하여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난방유와 연탄, 김치를 전달하였으며, 어린이 공부방·도서관 꾸미기, 놀이공원·문화체험 나들이, 난방유 및 후원금 지원 등 열여덟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No.3 HOU Project 제2차 무재해 500만인 시 달성

GS칼텍스 No.3 HOU Project가 지난 1월 15일 24시를 기해서 제2차 500만인 시를 달성했다. 이는 GS칼텍스가 수행한 Project 중 최고 기록으로 지난해 9월 20일부터 118일간 63개 협력사 및 일일 근무인원 약 6,700여 명의 근로자가 일 이상의 직업손실 사고와 직접 손실 5,000만 원 이상의 화재 및 폭발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No.3 HOU 사업단은 명영식 사장 및 우수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7일 제2차 무재해 500만인 시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명영식 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프로젝트 참여자 모두에게 감사와 치하의 말을 전했으며, 시운전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No.3 HOU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가 무재해 기록 달성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 여수지역 아동센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GS칼텍스는 겨울방학을 맞은 여수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에게 원어민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난 2월 4일부터 여수 공화동 동여수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화양면 꿈쟁이지역아동센터 등 8개 지역아동센터 320여 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였다.

하루 2시간씩 5일 동안 원어민 선생님과의 학습을 통해 영어공부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데 일차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 고객과 함께 아이티 지진참사 구호기금 전달

GS칼텍스가 고객과 함께 아이티 지진참사 구호기금을 마련하여 전달한다. GS칼텍스는 최근 지진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중남미 아이티의 난민들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인 키스 사이트에서 고객들의 포인트 적립금 기부를 통해 5천만원을 모금하고, GS칼텍스가 매칭그랜트한 5천만원 등 총 1억 원을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GS칼텍스는 이번 구호기금 마련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고객의 포인트 적립금 기부와 기업의 매칭그랜트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고객의 기부 참여를 지원하게 된다.



■ 대법원 "S-OIL 기름값 담합 없었다" 판결

대법원이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담합을 둘러싼 S-OIL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소송에서 S-OIL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1일 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질유 담합 사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상고 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4월 S-OIL이 국내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2004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0일까지 주유소나 대리점에 대한 경질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S-OIL에 대해 시정명령 및 약 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S-OIL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즉시 불복하여 2007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1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S-OIL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위의 처분으로 인해 S-OIL의 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이 가려져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근래 S-OIL과 관련된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서 회사에 대해 제기된 모든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S-OIL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공정한 경쟁을 위한 노력과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펴는 등 정도경영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전현직 임직원 '사랑의 떡국 나누기' 봉사활동

S-OIL은 설날을 맞아 지난 2월 3일 서울시 영등포 광야교회 노숙자 무료 급식센터에서 사랑의 실천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S-OIL과 함께하는 사랑의 떡국 나누기'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를 비롯한 S-OIL 사회봉사단 60여 명 외에 S-OIL 전직 임원 10명도 함께 참여하여 노숙자와 쪽방촌 거주민 500여 명에게 직접 떡국을 끓여 나누어 주었다.



수베이 CEO는 "설날에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습이 한국의 전통이듯 에스-오일도 전현직 임직원들이 함께 작은 정성을 모아 이번 봉사활동을 준비했다"며, "특히 S-OIL을 만들고 가꾸어오신 선배 임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부상소방관 30명에 치료비 지원



S-OIL은 지난 1월 14일 화재진압, 긴급구조 활동 중 부상을 당해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총 6천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S-OIL은 서울 중부소방서에서 '공상소방관 격려금 전달식'을 갖고 화재 진압 도중 3도 화상을 입어 7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는 이안재 소방위(49세) 등 30명에게 각각 200만원을 전달하고 쾌유를 기원했다.

S-OIL 관계자는 "화상, 골절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고도 지원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온산공장 확장 프로젝트 무재해 안전결의대회



S-OIL 무재해 결의대회 SEP PROJECT SAMSUNG ENGINEER

S-OIL은 지난 1월 22일 온산공장 확장프로젝트 현장에서 '무재해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1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온산공장 확장프로젝트의 안전 준공을 결의하기 위한 자리로,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와 박기석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을 비롯해 주요 시공업체 대표 및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수베이 CEO는 격려사를 통해 "안전은 고객만족의 최우선 요소이자 S-OIL 경영의 핵심가치 중 하나"라고 밝히고,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 경영진, 철원 DMZ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S-OIL 경영진이 주말을 맞아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두루미 서식지에서 천연기념물 보호 봉사활동을 펼치고, 전방부대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S-OIL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를 비롯한 임원 30여명은

지난 2월 20일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소재 두루미치료소에서 천연기념물 202호로 지정된 두루미의 문화·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아이스크림고지 인근 두루미 서식지에서 모이주기 봉사활동을 가졌다.

■ 日 이데미츠에 고급윤활기유 장기공급



S-OIL이 일본 이데미츠사와 고급 윤활기유 제품에 관한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일본에서 열린 조

인식에서 S-OIL 신혁 상무는 이데미츠의 윤활유부문 히로시 세키 부문장과 고급윤활기유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양사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 휘발유·경유 환경품질 '★5' 세계 최고수준 획득

S-OIL의 휘발유·경유 환경품질이 최고수준임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가 2009년 하반기 조사한 수도권 지역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에서 S-OIL 휘발유와 경유가 동시에 세계 최고수준(★5개, 국제 최고등급 수준)을 획득했다.

자동차연료 환경품질에 관한 최고등급 획득은 그동안 S-OIL이 다각도로 추구해온 환경경영의 결실이다. 1994년에 이미 국내 정유사 최초로 청정등유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S-OIL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 개선을 위해 탁월한 운영 효율성을 발휘해왔다.

휘발유·경유의 황 함량 충족 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10ppm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알칼레이션 공장 건설을 추진해 지난해 9월 가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S-OIL은 하루 9,200배럴의 알칼레이트 생산 능력을 갖추고 황·올레핀·아로마틱·벤젠과 같은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 휘발유 유분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대 현금장사 팀 전사 액션러닝 대회 아이디어 대상 수상



지난 1월 20일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 내 컨벤션 홀에서 열린 2009 전사 액션러닝 대회에서 기획팀 조득신 부장이 이끄는 '현금 장사'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유동층 연소 보일러 설비인 FBC 보일러 설비와 집단 에너지 신 사업에 대한 수익성개선 아이디어를 평가단이 인정한 것. '현금장사' 팀은 업무 개선 성과가 가장 기대되는 팀에게 수여하는 '업무 개선 우수상'도 수상해 기쁨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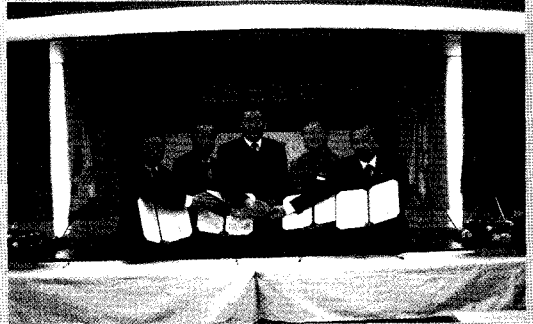
총 상금 1,500만원을 수여한 이날 행사에는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대표 이사, 봉현철 전북대 교수를 비롯해 내외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서영태 사장은 "현장의 사소한 아이디어 하나가 단초가 되어 큰 변화의 물줄기를 이끌 수 있다"며 "모두 훌륭한 혁신 의지를 보여준 아이디어의 잔치였다"며 심사 소감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재해예방 MOU 체결

지난 1월 22일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홍보관에서 현대오일뱅크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계약은 현대오일뱅크가 실시하는 #2 HOU 건설, BTX 공장 건설 등 대규모 공사에 앞서 산업재해를 예



방하고 안전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기술자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했다. 이로써 건설 기간 동안 현장 안전관리는 현대오일뱅크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책임지게 됐다.

협약식에는 현대오일뱅크 김정석 증설사업 본부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천안지도원장, 보령지정장 등이 참석했다.

오일뱅크 오프라인 사규집 발간



지난 1월 27일 현대오일뱅크 사규집이 발간돼 각 팀별로 전달됐다. 그 동안 지-Cafe 전사문

서함에 등재되었던 것을 각 팀원들이 업무 수행 시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사규집으로 만든 것.

사규집은 현행 지-Cafe에 등재돼 있는 사규 123개를 수록했으며, 바인더 형식으로 제작해 추후 추가로 생기는 사규를 바로 편철 할 수 있도록 했다. 사규집은 총 2권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발간되는 사규집은 각 팀별로 업무 수행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용빈도 수가 높은 사규를 선정해 '팀별 필수 인지 사규'로 제정해 수록했다.

임직원 윤리경영 인식 좋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2월31일까지 18일 간 총968명이

참여한 2009년도 임직원 윤리경영 설문조사에서 전년 대비 1% 포인트가 증가한 91%의 응답자들이 회사 이익과 윤리경영이 상충될 경우 윤리경영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대답했다. 2007년도 조사에서는 동일한 대답을 한 임직원이 80%로 나타나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윤리경영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임직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회사의 윤리경영 의식 수준이 높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작년어 비해 소폭(3% 포인트) 하락했으나, 상사·동료의 비윤리적인 행위 시 신문고에 제보하겠다'라는 대답은 7%포인트 상승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의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셀프주유소 1호점 '사당셀프주유소' 오픈



서울지역본부 사당동 주유소가 지난 2월 11일 리모델링을 마치고 현대오일뱅크 최초의 직영 셀프 주유소 1호점인 '사당 셀프 주유소'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사당동 주유소는 지하철 4호선 이수역과 사당역 사이의 대로변에 위치해 차량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유소 인근 지역인 이수, 동작지역에 대한 재개발 가능성도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큰 주유소로 주목 받아왔다. '사당 셀프주유소'는 약 6개월 동안 7억 여 원을 들여 셀프 주유소로 새로 태어나게 됐으며 총 4대의 셀프 주유기를 설치해 8대 차량의 동시 주유가 가능하다.

'사당셀프주유소'가 오픈하면 현대오일뱅크는 전국 28개소에서 셀프 주유소를 운영하게 된다.

■ 사회 첫발 '나눔부터 배워라' 신입사원 봉사활동



지난 1월 16일 이후, 현대오일뱅크 신입사원 27명은 서울 중랑구 소재 신내노인요양원을 방문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머리 손질과 발마사지 등 봉사활동에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새내기 봉사활동은 곧 현업으로 배치되기 전 거쳐야 하는 신입사원 필수 교육 과정으로 회사의 경영 철학과 비전인 사회적 책임에 대해 몸소 이해하고,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직접 체험하기 위한 필수 코스다. 이날 27명의 신입사원들은 6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한파에도 아랑곳 없이 어르신들의 희불과 웃기지 등 빨래거리를 차가운 물로 씻고 빨기를 반복하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이들 새내기들은 고단한 삶속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짐을 덜어주고자 즉석에서 2~3인조 댄스팀을 꾸려 '재롱잔치' 시간을 갖거나, 집안 청소, 식사 도우미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얼어붙은 요양원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 아차사고 사례 공모

현대오일뱅크 환경안전팀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차사고 사례 공모전을 실시한다. 아차사고 사례란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험담이나 에피소드를 말한다.

아차사고 사례 공모전은 이를 현장의 모든 사람과 공유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율을 줄여 보자는 취지의 행사로 그 동안 매년 7월에 한시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년 중 행사로 바꿔 시행할 예정이다. 아차사고 사례는 환경안전보건 프로그램(SAFE)를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사례를 등록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분기별로 최우수상과 우수상, 그리고 참가상을 뽑아 포상한다.